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월 28일 (제935호)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향기와 악취

내 성경책 겉표지를 넘기면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박 모 장로가 넘어진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인천예수중심교회는 가좌동에 있지만, 그 전에는 송의동에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 유명했던 박 모 장로가 목회하던 곳이었다. 나는 그 곳을 인수하고 들어가면서 그 글을 성경에 적어놓았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의 거울이겠는가!

꽃 중에 가장 향기가 좋은 꽃은 백합의 향이다. 그러나 백합이 썩으면 그 냄새는 그야말로 지독하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6:4~6).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던 장로와 목사들이 귀신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을 봤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갈취한다.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끈다. 마치 좋고 그윽한 향기를 내던 백합이 썩으니 가장 지독한 악취를 내는 것처럼.

왜 그럴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된 걸까? 기도를 잃었기 때문이다. 빛을 잃으면 어두움은 찾아오는 법,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와 교만하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본시 마귀의 습성이다. 루시엘이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자, 하나님께 큰 권능과 능력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고난이 온다. 이유 없는 핍박도 온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기도를 잃을까봐, 그래서 향기가 아닌 심한 악취를 낼까봐 그렇다. 백합은 썩릴 때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 발산한다고 하지 않던가.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다.

단언컨대 기도를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울타리를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기억하라!”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잘 기억하라는 뜻이요, 거기에 더하여 매사 심사숙고하라는 교훈이 담겨있다. 목사님은 이 글귀가 새겨진 액자를 결혼하는 부부나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선물하시곤 하는데, 이는 부부가 처음 만나 가졌던 첫사랑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처음의 각오를 늘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8~2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13).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를 것이 없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사라지고 불평불만에 원망과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다. 그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병든 영혼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기도가 떠난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기도가 떠난 사람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요, 기도가 풍족한 사람은 모든 일에 풍족한 삶



울타리를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기억하라 朋友

목사님은 이번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1시간 기도를 실행하셨다. 그리고 주일에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곧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믿는 자의 카드에 대하여 강조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

그러나 이러한 능력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기에 거듭 기도할 것을 촉구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14:3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4:6).

내 속에 성령을 모셔 들여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신령한 영적 삶과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세 있는 삶에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늘 싱싱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날마다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도 생활이 시들해지고, 그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잃다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

을 살 것이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예배에 1시간씩 기도하여 잃어버린 영적 능력,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되찾자고 독려하신다.

이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는가? ‘기도해야지, 해야지’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장담하건대 기도의 습관은 당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런 삶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의 근원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4:31~44)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지난 주 제가 독감에 걸려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냉탕에 있다가 바로 이발을 하러 나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냉탕 후 온탕에서 몸을 충분히 데웠어야 하는데 사우나 내의 이발소인지라 이발사 아저씨가 부르니 그냥 나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독감 무섭습니다.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것 같이 아프고 기침에 신열이 올라 끔찍 앞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주례가 있어 주례하다 기침하면 낭패인지라 기침 안 나오게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례 중에는 기침이 멈췄는데, 주례가 끝나니 바로 기침이 나왔습니다. '기도한 대로구나' 라는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다음 날이 주일 아닙니까? 이 상태로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하고 밤새 기도하다 아침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 쫓는다는 목사가 왜 귀신을 안 쫓았지? 성도들에게는 귀신을 쫓으라고 하면서 왜 나는 이 감기 귀신을 안 쫓은 거야?' 깨닫고는 바로 거울을 보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가뿐해져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병의 원인은 다 귀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기가 무슨 귀신이에요? 감기는 유행성 바이러스이죠. 귀신 귀신 하지 마세요."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걸려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그가 일어나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감기몸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으면 나가는 어떤 인격체가 병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 인격체가 바로 귀신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百戰百勝)한다

두 해 전쯤 설날에 어머니 맥을 갔는데, 어머니가 감기가 심해 누워계셨습니다. 세배도 못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바로 일어나 세배를 받으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다 귀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해 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눅4:40~4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는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같은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마8:16). 마태의 표현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각색병을 다 귀신을 쫓아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각색병이지만, 원인은 다 같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

입니다. 예수님이 쇠갈고리가 달린 채 짊어 맞아 온 몸이 갈기 갈

기 찢기신 것은 우리의 병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 아플 테니 너희는 아프지 말고 잘 살라'고 당신이 찢긴 겁니다. 그런데 왜 아릅니까? 바로 마귀의 지령을 받은 그의 줄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색병, 즉 우습게 여기는 감기부터 불치병까지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소경이 된 것도(마9), 간질도(마17), 정신병도(막1), 중풍병도(눅13), 소경도(마12) 귀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처방전, 치료법은 딱 하나,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들

매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을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행5:12~16).

이렇듯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원들이 두려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4:18)고 명한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

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

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마1:21).

그런데 성경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요17:11)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의 것들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2:9~10).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요14:26). 이는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

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요1:12),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행1:8).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집사들이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고, 앓은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각색병을 고치는 것은 이초석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주의 종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 충만해야 귀신이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총은 있으나 실탄이 없는 격이요, 혹은 총과 실탄도 있으나 총구가 녹슬어 총이 나가지 못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걸랑 거울을 보고 내어 쫓으세요. 머리가 멍해도, 다리가 아파도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러면 하품이 나든, 눈물이 나든, 방귀가 나오든 할 겁니다. 더 나아가 암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나갑니다. '암은 안 될 거야.' 생각하면 안 나갑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것도 귀신입니다. 덩치가 큰 곰이 총 한 방에 안 나간다고 가만 있으면 어설피 맞은 곰에 당합니다. 계속 쏘면 곰도 쓰러지는 겁니다.

또 일이 꼬여도 귀신을 쫓고, 집이 안 팔려도 귀신을 쫓으세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팬히 마음이 우울해도 귀신의 짓이니 내어 쫓으세요. 당신의 믿음이 문제이지 예수 이름 앞에 안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병원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분량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이 주신 능력으로 항상 귀신을 내어 쫓아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거저씨만한 믿음 ::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자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 에덴동산을 만드셔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므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신 것은 늘 그것을 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진의 배치도를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열 두 지파가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진'의 히브리어 '하나'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의미의 '하난'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중심으로 뺏어나갑니다. 가지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께 붙어있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서 섬겨야 하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이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행동부터 달라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8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복되고 귀한 교단과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To Be Succeeded ::

예수의 이름으로!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프로복싱 타이틀전에서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가 당시 11전 11승 11KO의 전적을 가진 카라스키야를 상대로 승리했다. 그것도 4전 5기, 네 번 연속 넉 다운되고 다섯 번째 일어나 상대를 KO시킨 대역전극으로 말이다. 계속해서 맞고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끝내 승리를 거머쥔 이 경기에 대한민국은 열광했다. 당시 세계복싱협회(WBC)는 다운당해도 당사자가 싸울 의사를 표시하면 계속 경기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홍 선수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싸울 의사를 표시하여 경기를 지속했다고 한다.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날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며, 의기소침하여 뒤로 물러나 침묵에 빠지곤 한다. 예수님을 은화 삼십 냥에 팔아넘긴 것을 뒤늦게 후회한 가롯 유다가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러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잠24:16).

다윗도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다. 충성스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얻고자 하는 탐욕에 눈이 멀어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한 다윗의 행위 자체는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은 그가 담대하게 통회 자복하여 밤새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였기에,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나? 실수하고 넘어졌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며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지만, 좌절하고 두렵게 하며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 붙들린 80살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영도자가 되고 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 메마른 영혼육과 환경에도 반드시 생명은 차오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 담대히 일어나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일어나라!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어떤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시험 날 지각을 하는 바람에 시험조차 보지 못하였다. 왜 늦었냐고 묻는 선생님께 그 학생은 학교 가는 길에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있어서 주우려고 했는데, 마침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동전을 찾고 있는 중이어서 같이 찾아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동전을 가지려고 발로 밟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지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에 선생님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 고작 500원짜리 동전 때문에 중요한 시험을 놓친 것이었다. 이 바보 같은 학생의 이야기가 웃길지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곧 너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삶에 목표가 없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정하지 않았기에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를 정할 때는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일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목표를 계획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배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3%의 학생만이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적었는데, 그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학생들보다 평균 10배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다시 시작되는 2018년에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고 노력하여 꼭 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떤 목표든 이를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하나님 전문가!

지난 해 송년회 자리에서 한 해를 정리하며 각 부서별로 좋은 성과를 낸 것, 부족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어 2018년 각 부서별로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 많은 부서의 발표 중에서 난 어느 취재기자의 비전 발표에 눈길이 갔다. 그 내용인즉슨, 뉴스 기사 작성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 할 때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 사람이 자기 분야에 책을 집필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요즘 전문가(석박사, 대학교수, 정치인, 사업가)들이 신문이나 방송 외 인터넷(블로그나 SNS)으로 활동하는 환경 속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그의 참 전문가 판단 기준이 '전문 분야의 책 출판 유무'라니 충격적이었다. 실제 서점에서는 자기계발 서적이 넘쳐나고 출판사들은 수만 명 작가들의 수천억 개의 원고 중에서 가치 있는 글만 찾아내 책을 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그 분야에서 검증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재기자의 현명한 취재 대상 선택법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 나를 한번 돌아보았다.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며 당장 책을 집필할 정도의 지

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가?' 라며 고민하고 있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집안 한 편에 쌓여있던 100권이 조금 안 되는 크고 작은 노트였다. 그 노트들은 중학생 때부터 쓰기 시작한 예배 설교 요약노트와 하루하루 빼곡하게 기록된 일기장들이었다. 철야예배, 학생부 예배, 주일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설교요약이 깔끔하게 노트에 적혀있었고 노트의 끝자락에 그 날 목사님의 설교와 부합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정이 담겨있었다. 또, 일기장에는 하루의 기록과 함께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주신 꿈의 내용, 기도 응답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하나님을 생각하며 창작한 시들이 적혀있었다.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도 총회장 목사님은 일기 쓰기를 강조하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일기 쓰기와 설교내용을 노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며, 목사님을 본받아 이번 년도에는 꼭 '하나님 전문가'로 신앙에세이 책을 출판할 것을 다짐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야생마가 준마가 되기까지



누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진흙 한 덩이로 태어나 나를 '준마'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한 명 조련사에 의해 작품을 넘어 명품으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준마DNA로 창조하셨으나 에덴동산에서 마귀에 걸린 뿔에 걸려 패배함으로 인류는 야생마DNA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명 조련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준마DNA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저의 지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증과 일화일지라도 나를 신년사의 메시지가 있을 법합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참 기대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지는 법을 가르쳐주시지 않고 오직 이기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알려주셨지요. 초등학교 때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싸움

을 하다가 지고 오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3~7일을 싸우다 결국 이기고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술 마시기 시합을 할 때, 제가 술을 마시다가 저의 분비물이 역류되면 저는 친구들 앞에서 그 분비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곤 내기나 시합에서 이기곤 했지요.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유지해보였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독특한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이었음을 느낍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 1년간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직 선택문제로 말입니다. 어느 날 천둥번개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산산 조각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는구나!”

“너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거라!”

저는 곧바로 선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재까지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선교 후 가장 값진 것을 잃었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일화와 간증은 저의 의지하고는 상관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있는데 야생마는 절대로 스스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마 역시 스스로 준마로 탄생한 것이 아님을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명 조련사가 있었기에 준마로 회복되며 탄생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초석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야생마는 자신의 의지를 버려야 조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자신을 명 조련사에게 맡겨야 명마로 탄생하여 임금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 조련사 예수님과 이 초석 목사님께 조련당해보세요. 비록 고되고 힘은 들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고 마침내 준마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도 잘 조련되어 또 다른 야생마들을 준마로 길러 내는 명 조련사가 되겠습니다.

중국 선교사 어윤석 목사

다. 그러나 더불어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다. 도전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말은 '그건 불가능해.'이다. 정말 사람답게 말처럼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에디슨의 말처럼 도전한 자는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더 터득한 것이니 도전이 결코 무모하다 말할 수 없다.

젊은이들이여!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길이 보이지 않아야 도전이지 않겠는가. 2018년도 도전하는 자가 되라.

겸손하지 말라

믿음은 나를 강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다소 부족했던 학생 시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냐고. 또 사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네 생각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 대답할거냐고.

‘나는 죄인이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나를 겸손의 답변을 했다. 자신이 의인임을 감사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한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세리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바 있어서다(눅18:11~14).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이지 심판대 앞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다(마 11:12). 그렇다.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구원의 믿음은 겸손이 아닌 당당함이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법을 세우셨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 바로 이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구원의 믿음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지전능하기에 네가 땅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낱알이 알고 있다.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했는데, 그래도 네 생각엔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에 저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네 생각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당신의 답변은 무엇인가? **박찬영**
cross35@hanmail.net

고정관념을 깨자

마차의 바퀴는 맨 처음 나무로 되어 있었다.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 쉽게 닳았다. 그래서 닳지 않는 쇠로 만들었다. 쇠로 만드니 닳지 않아 좋은데 문제는 승차감이었다. 마차를 타면 엉덩이가 너무 아팠다. 여러 생각 끝에 길에 고무롤 깔아보니 엉덩이도 아프지 않고 너무 좋았다. 문제는 길마다 고무롤 까는 일이었다. 비용은 물론이고 노동력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다. “길바닥하고 바퀴를 서로 바꾸어보면 어떨까? 길에 고무롤 깔지 말고 바퀴를 고무로 만들면 같은 효과가 아닐까?”

그러나 다들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단단한 쇠바퀴도 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데, 고무는 무거운 것을 올려놓기에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적합하지 않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고무 속에 바람을 넣은 타이어를 개발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은 없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 보리차와 옥수수수염차

요즘 국산차가 대세이다. 오늘은 그 중 보리차와 옥수수수염차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한다.

보리는 대맥(大麥)이라고도 하고, 성질이 달고 서늘하며 독성이 없다. 주로 비장, 신장 쪽으로 효능이 있고, 소화기능을 도와주며, 갈증을 줄여주고, 설사나 소변이 시원치 않을 때 도움이 된다. 보리는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당질대사에 도움을 주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를 함유하여 장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저하, 대장암 예방 등 유익한 기능을 한다.

소화가 안 되고 눅고만 싶을 때, 보리차는 소화를 도와 식욕을 증진시키며 피로를 없애준다. 또한 보리로 만든 엿기름도 소화가 잘 안될 때 도움을 주며, 가스가 많이 찰 때는 곱썩질차(진피차)와 함께 보리차를 같이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수유 시 젖을 뿔 때 엿기름의 윗물을

차처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간식으로 자주 먹는 옥수수는 성질이 달고 독성이 없으며, 위장, 대장, 신장으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소화가 잘 안되거나 소변이 덜 시원하거나 신염, 고지혈증, 고혈압, 간암, 피부암, 담낭염, 간염 등에 도움이 된다. 소화력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옥수수는 항산화 기능이 매우 강한 항암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백혈병, 간암, 피부암에 현저한 항암 작용을 나타내고, 발암 물질의 형성을 억제한다. 치매 증상의 예방 및 치료 시에도 옥수수와 밀기울을 주식으로 하면 좋다. 옥수수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시키며, 혈액의 지질농도를 저하시켜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방지에 도움을 준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옥수수를 볶아서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옥수수에 붙어있는 옥수수수염은 성질이 달고 담담한 맛을 가지며, 소변을 시원하게 하고, 담낭의 순환에 도움을 주어 담즙분비를 촉진시키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담낭염, 당뇨병, 혈압, 코피에 활용된다. 현대인의 만성 고질병의 예방치료와 다이어트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보리차와 옥수수수염차는 소화를 잘 시켜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는 비슷하다. 그런데 갈증이 심하게 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는 보리차가 갈증을 줄이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 옥식을 먹은 후에 소화를 편하게 하거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평상시 옥수수수염차가 도움이 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 잘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란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